

## ACE 4 :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태복음 1 :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 :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은 사도 신경 강해 네 번째 순서로써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의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은 증보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증보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에게서 나셨으니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고백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신성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으므로 이번주에는 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의미

#### 1.1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출생이 보통 사람과 다른 독특한 점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 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없이 태어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단지 마리아의 womb 을 빌려 기적으로 잉태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예수님의 수난에 참여한 어느 여인의 실화를 우리 집사람이 T.V.에서 보고 나에게 해 준 이야기입니다.

어떤 평범한 시골 여인에게 어느 날 어느 시에 네가 나의 수난에 참여하리라는 예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자들이 이것을 취재하려고 모였습니다. 이윽고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침실에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의 수난이 체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온 몸에 고통이 임하여 몸부림칠 때 머리와 손바닥과 발목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피를 받고, 기자들은 그것을 취재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여인은 곧 정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체현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St. Francis 에게 체현된 예수님의 수난입니다. St. Francis 에게도 이런 그리스도의 수난이 체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여인의 손과 발과 머리에서 흐른 피를 채취하여 과학자들이 DNA 검사를 해보니 그 여인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여인의 몸에서 나왔는데 그 여인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의 손과 발에서 흐른 파가 그 여인의 피가 아니듯,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지만, 마리아의 피를 받아 태어 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죄없이 태어 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마리아는 단지 몸만 빌려 준 것일 뿐,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마리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 : 2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 : 3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역사상 실제로 계신 분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처럼 실제로 사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속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실제로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속의 교리가 무너지고, 성경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역사상 처녀가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과 분석으로 아는 이성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계시적 지식에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만 이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1.2 성육신((Incarnation)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Incarnation 은 Latin 말 "becoming flesh,"에서 온 것으로, "becoming human."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의 어떤 감소가 없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The doctrine of the Incarnation teaches that the eternal Son of God became human without in any manner or degree diminishing his divine nature.).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므로,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 : 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 :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육신은 중보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의 속성은 무한(Immensity, INFINITY) 하시고 무소부재(omnipresence), 전지전능(全知全能 Omniscience and omnipotence), 초월적(TRANSCENDENCE)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본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재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예수님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골로새서 2 :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 :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시고 성육신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당신과 똑같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좌정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인성과 성육신의 아주 중요한 교리적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 2. 예수님의 무죄성

### 2.1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 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특징은 죽음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전가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죄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이 구절에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는 자유 의지를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다가올 죽음을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후 죄에 대한 형벌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조상인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이 그 후손 모두에게 전가되어 후손 모두에게 사망이 다가 왔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 : 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전가 받고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습니다. 이와같이 죽음은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영적 처방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영적 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결합으로 태어나질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15 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죄는 없다**고 하는 말이 원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원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일반으로 땅속에 묻혀 그 몸이 썩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2.2 다음에 예수님은 자범죄가 없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없이 태어나신 사실과 함께, 속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 시대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나 염소는, 흠이 없고 점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것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사지(四肢)의 어느 부분이 불완전하다든가 병신인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드리면 죄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없으신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한번도 자범죄를 진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8 :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하셨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 : 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가 없으시고, 한번도 자범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길

베드로전서 1 : 18 너희가 ---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1 :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 3. 예수님의 명칭으로 본 인성

#### 3.1 여자의 후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가 인간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 날 것이라고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창세기 3:15 입니다.

창세기 3 :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 년 전에 예언하기를

이사야 7 : 14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님은 오시게 된 것입니다.

### 3.2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인성을 지시하는 다른 중요한 용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모두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이사야 9:7 은

이사야 9 :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하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실 것이 예언된 분이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 4000 년의 긴 역사 안에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간이 이해될 수 있는 말로

예언되다가, 때가 차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긴 역사의 뿌리가 있습니다.

3.3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에 인자(Son of Man)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하여 인자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는 영어로는 Son of Man, 우리 말로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인자라는 명칭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는 명칭인 하나님의 아들과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비천한 인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그런 Messiah 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메시아로서 당신이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으런 의미에서 메시아라는 말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삼가셨으며, 그 대신 인자라는 말로 당신의 Messiah 적 성격을 함축하셨습니다.

### 3.3.1 구약에서의 용례

<에스겔 서에서>

인자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에스겔서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에스겔 21 : 1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 21 : 2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를 예언자가 개인의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고 인자, Son of man 이라고 부르십니다.

<다니엘 서에서>

다니엘 7 : 13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다니엘 서의 용법은, 이것은 인자의 인성보다는 신성에 치중하는 말입니다.

### 3.3.2 인자의 신약적 용법

마태복음 26 : 6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됨을 말합니다. 중보자로서 인자 안에 있는 완전한 신성을 말한다.

### 3.4 둘째 아담

고린도전서 15 :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 :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을 가르키는 말은 무엇인지 질문 할 것!)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타락한 사람들의 시조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회복된 사람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육에 속한 것을 상속해 주었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을 상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둘째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말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둘째 사람 예수님을

**히브리서 1 :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말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에 의해 중생한 우리의 Identificatin 을 말해주는 중요한 말들입니다. 중생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 의해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신령한 존재들이요,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해 가야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서는 둘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와 같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4. 덕성으로 본 예수님의 인성 : 겸손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 2:5-8 에서 말하길,

**빌립보서 2 :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 :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form ; mophae)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 :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form ; mophae)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 :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겸손은, 허기(虛己)와 비기(卑己, Humiliation)라는 두 각도에서 말해집니다.

허기(虛己)는 자기를 비운 것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된 것이며, 비기(卑己, Humiliation)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신 것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의 비천한 자리에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허기에서 시작하여 비기로 끝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 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습니다. 이 때 제자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 : 24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 22 :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누가복음 22 : 26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누가복음 22 :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자신의 위치를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장성한 신앙인의 hallmark 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은 곳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장성한 신앙인입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점점 낮아지고 낮추려 하는 자는 점점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저 산 밑에 백합화라고 부릅니다. 산 밑 아주 낮은 곳에 있으니 젊은 이, 늙은이, 약한 자, 강한 자 모두가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 있는 백합화라면, 힘이 있고 능력있는 극히 제한된 사람만 그에게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은 데서 봉사하는 저 산밑의 백합화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의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 달라고 계속 남에게 요구하며 상처를 줍니다.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는 1,000 개의 거울로 된 유리 홀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면 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 살며시 웃으면 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손과 웃음은 모두 자기 자신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둘러 싸여 있고,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으며, 자신에 의해 감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눈은 오직 자신만을 향해 있으며, 그의 목구멍은 자신을 만족시켜 줄 아침과 찬사의 말에 목말라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 주지 않는다고, 대접이 소홀해졌다고 섭섭해 합니다. 무시를 받았다고 괴로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남이 찢어도 아프지가 않은 데, 교만해지면 찢을 때 아파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받으면 얼굴을 붉히며 마음에 평정을 잃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교만하여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픔의 증상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면 겸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교만을 치료하시기 위해 가시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5.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수 있는 현실적인 유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알면, “나도 이길 수 있지!” 하면서 시험을 참고 넘겨, 이기는 것이 쉬워 집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example 이 될 만한 선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여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나 부부나 부모입니다.

친구나 부부나 부모보다도 이 역할을 가장 잘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모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친구나 부부나 부모는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땅위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눅 22:28).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심성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가정의 슬픈 역사를 아시고 계시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 제낀 수가성 여인의 가슴의 공허함을 아시고, 피곤할 정도로 걸음을 재촉하여 빨리 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한번도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과 약점을 다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요?

히브리서 2:18 은 말하길,

히브리서 2 : 18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하고

또 히 4:15 은

히브리서 4 :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점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에게 example 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빈 손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히브리서 4:16).

히브리서 4 :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 :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나아 갈 때, 예수님 신성의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넘치게 됩니다.

골로새서 2 :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 :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